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취업까지 한방에!

전북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연간 13억7300만원 투입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교육부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은 전북대를 비롯한 권역별 12개 대학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통해 실무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양성해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전북대는 이번 선정에서 12개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국고 지원금을 확보해 앞으로의 활발한 사업이 기대

되고 있다.

전북대는 5년 간 정부 지원과 지자체 및 대학별 대응금 등을 포함해 매년 13억7,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생명·ICT 융합, 공산, 안전 분야의 우수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전북대가 주축이 돼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군산대 등 지역 내 대학과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지자체 등이 협력한다.

또 농진청과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7개 공공기관과 순수본 주식회사, 풍림과파텍(주), (주)밀부벤처스, 반핵소영농조합, 전북체리 등 지역산업체 등도 참여해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농생명분야에 적용하던 교육과정을 연금급, 전기안전, 공간분야 등의 분야로 확대해

분야별 전문우수인재 양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대를 비롯한 협력대학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자체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인·물·적 교류도 활발히 추진, 이같은 활동이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이어져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뿐 아니라 학생들의 공공기관 및 산업체로의 취·창업 확대에 따른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착 등을 모색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농생명 ICT 융합 산학연구 본격 추진

전북대, 활용방안 모색 포럼 개최

스마트 폰으로 간편하게 동식물 질병 예방·기후 변화 등을 체크해 농축산 분야에 적용하는 ICT 기술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단장 이화교 교수)은 25일 ICT 융합기술의 성과와 활용방안을 모색해보는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사업단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유전체 정보 기반의 한우 유전체 선발 기술과 약취 및 생산성 저하 등 축산 분야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을 소개했다.

"한우 유전체 선발기술"은 하나의 DNA칩에 5만여 개의 한우 유전자 정보를 담아 유전능력을 평가하는 기술로 국가단위 씨수소 선발, 친자확인 등 고품질 한우 개량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또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은

연구 모델농장인 두지포크에서 3년간 현장 실험 결과에 따라 축산 냄새, 분뇨 처리 등 축산 4대 현안 해결을 위한 유용 미생물을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돼지에게 고농도의 프로바이오틱스를 급여함으로써 돼지의 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인다.

이 기술은 알맞게 배합된 미생물이 농가에 매일 적정시간에 배급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관련 연구진들은 미생물 배합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ICT기술을 적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사업단은 이날 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 조은삼(주) 등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ICT 기술을 농축산 분야에 적용하고 확산하기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

이를 통해 사업단은 도내 농가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우시장 경매 및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조은삼(주)과는 기술 개발에 필요한 동식물 유용 소재 추출 및 효능 검증과 유효 성분 인증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목포대, 서해안지역 화합 위한 업무 협약

군산대학교는 최근 대학 본부에서 목포대학교와 상생발전 및 서해안 지역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서해안 지역 소재 국립대학교가 상호 교류하면서 지역중심 국립대학교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대학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협약 결과 양 대학은 지식, 교육, 인재, 문화의 상호교류를 통해 상생발전을 이루고자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운용하기로 했다.

협약의 세부사항은 ▲공유, 공감, 공

생의 화합을 통해 서해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 개발 ▲지역 간 화합을 위한 오픈이더 리더 육성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협력과 소통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화합과 소통을 위한 문화교류의 장 마련 및 운영 ▲공동인화 홍보프로그램 운영 ▲서남권 산학협력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 등 상호협력 및 교류 활성화이다.

협약 체결 후에는 '전남북지역 상생을 위한 국립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심포지엄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목포대학교 송하철 기획처장의 '목포대학교 주력 사업

프로그램 소개' 및 군산대학교 양현호 기획처장의 '군산대학교 주력 사업 프로그램 소개' 등을 통해 상호 대학의 현황과 비전 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대해 군산대학교 광병선 총장은 "학생 학습권 보장과 입학자원의 공유 등을 통한 국립대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공동인화홍보 활동을 벌이는 등 서해안에 있는 두 국립대학이 교류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목포대학교 박민서 총장은 "조선·해양, 자동차, 탄소 밸리 등 서남권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양교가 상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협

약을 계기로 목포대와 군산대가 전남 북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도 상호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북교육청, 공직복무 실태점검 기간 운영

전북도교육청이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공직 복무관리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휴가철 발생할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공직복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도교육청 각 실과를 비롯해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공립 유·초·중·고 등 전체 교육기관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 △근무기강 해이 사례 △재난·사고예방 관련 대비 태세 미흡 사례 △품위 훼손 행위·업무 부적절 처리 사례·갑질 예방 교육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근무시간 행사 중 음주·고성, 성비위 등 품위 훼손 행위, 직무 관련 자·산하기관 및 직원 등에 행사 비용

전가 등 갑질 행위, 민원 미응대, 업무 처리 지연·해대 등 업무 부적절 처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송용섭 감사관은 "공직복무 해이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외할머니의 불편 해결 위해”

고창 영선중 오소연 학생, 발명전시회 대통령상 수상

고창 영선중학교 3학년 오소연 학생은 24일 제2회 대한민국의학발명전시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명전시회는 학생들의 우수한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전시하고 창의력을 고취하기 위해 특허청과 조선일보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대회로, 대한민국 초·중·고 재학생 및 청소년 등의 참여로 총 9,500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대상을 수상한 오소연 학생(영선중 3)은 “퇴행성관절염으로 계단을 오르내릴 때 고생하는 외할머니의 불편을 해결해주기 위해 ‘계단 타는 워커(walker)’를 발명하게 됐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계단 타는 워커(walker)’는 재활 치료를 돕는 보행보조기구로 상단의 보조브레이크를 통해 높낮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평지 뿐 아니라 계단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밖에도 유민영 학생(전주근영여고 2)은 ‘기능성 Bk 커버’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송진현 학생(무주중 3)의 ‘줄감개가 포함된 줄넘기 줄’, 권태리 학생(전주서곡중3)의 ‘악보에 부착해 조옮김을 쉽게 해주는 필름 및 기구’, 박채현 학생(전주근영여고 2)의 ‘손목 안마기가 부착된 마우스패드’가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단체상은 다수의 작품을 출품한 군산제일고, 전주근영여고팀이 수상했다.

우수발명품 171점은 오는 27일까지 일산 컨텍스에서 전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미래창작공방을 통해 발명·메이커교육에 집중하고, 미래 핵심역량인 창의적 사고력·심미적 감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 기쁘고 앞으로도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동시에 진행된 제2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에서는 김지형교사(이리공업고)의 ‘부속 풀이 설치 가능한 책상커버’, 정주원 교사(전주산흥고)의 ‘본스테를 품은 절전형 플러그’, ‘차량 공기순환장치’가 각각 한국발명진흥회 장상을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행정실장·직원 청렴교육 실시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정동일)은 24일 관내 유·초·중학교 행정실장 및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개정 행동강령과 갑질근절’이라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청렴한 직장문화 확산에 기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개정된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교육해 청탁금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동일 교육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학교현장에 정착해 청렴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